

# 효창공원성역화 설계

김도경

경희대학교 디자인연구원

## Design of Hyochang Park as a Holy Grounds

Kim, Do-Kyong

Design Research Institute, Kyung Hee University

### ABSTRACT

In 1997, Yongsan-gu Office of Seoul held a design competition for 'Hyochang Park as a Holy Grounds'. Although various shrines and monuments were located in it, Hyochang Park had lost its sense of place as a 'holy grounds' mostly by its neighborhood-park-like atmosphere at its entrance area. Specific requirement for this competition was designing a 'symbolic object' to make this park more 'holy grounds' looking. However, it was very regrettable that Yongsan-gu Office did emphasized on the 'object' rather than on the space or place in this design competition.

Three points were emphasized in the winning scheme proposed by the author : where the object be located in the park, how the object be connected with the rest of the park, and how the object be harmonized with some of traditional looking architectures and shrines.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articulate the concept of the winning entry in detail and to describe how the concept actualized in reality.

*Key Words : Hyochang Park, holy grounds, object, concept.*

## I. 서론

1997년 용산구청은 상해 임시정부요인과 항일 독립투사가 모셔져 있는 효창공원을 성역화하여 이곳을 찾는 시민과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애국심을 고양하고 역사교육장 및 시민 휴식공간으로 활용코자 하며, 용산구의 새로운 랜드마크(landmark) 역할을 기대하고 명소화 할 수 있는 '효창공원 성역화 상징조형물 기본계획(안)'에 대하여 현상공모를 실시한 바 있다.

1999년 준공 후 용산구의 새로운 상징물로써 그리고 지역주민에게는 특색있는 '공원'으로 이용되어지고 있는 본 작품에 대하여 당선작을 제출하였던 필자는 계획안과 준공후의 모습을 중심으로 계획안의 도출과정과 계획안에 담고자 했던 내용을 설계자의 입장에서 논하고자 한다.

## II. 효창공원

### 1. 위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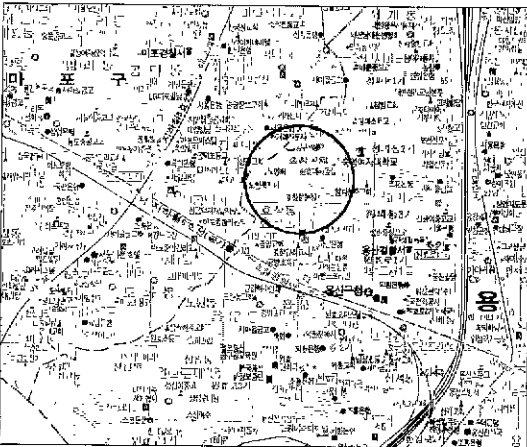


그림 1 위치도 · 서울시 용산구 효창동 255번지 일대

### 2. 면적

총 178,278㎡(53,928평)으로 선열묘역(김구 선생, 삼의사 묘, 임정요인 묘역)이 10,303㎡, 운동시설(효창운동장, 테니스장) 등이 39,212㎡, 도로·광장·녹지 등이 128,763㎡이다.

### 3. 효창공원의 유래

용산구 효창동 255번지 일대 53,000여평에 달하는 효창공원<sup>1)</sup>은 1989년 6월에 문화계사적 제 330호로 지정되었는데 이곳은 일찍이 효창원(孝昌園)경내였다. 효창원은 본래 조선조 22대 정조대왕의 장남인 문효세자와 그의 생모인 의빈 성씨와 순조의 후궁 숙의 박씨 및 영은옹주의 묘가 있었던 곳이었으나, 일제 말기에는 세자묘를 서오릉(西五陵)으로 장제 이장케한 비운의 사적지로 유서가 깊은 곳이기도 하다.

효창공원이 도시계획의 공원으로 된 것은 1940년 총독부고시 제 208호에 의한 제11호 공원이었으며 당초의 면적은 317,000㎡였다. 8.15후에는 일제 때 항일투쟁을 전개하다가 목숨을 바친 이봉창, 윤봉길, 백정기 등의 삼의사 묘와 안준근의 가묘 그리고 이봉녕, 차이석, 조성화, 김구선생의 임정묘역이 안치된 곳이기도 하며, 공원내에는 북한반공투사 위령탑(1969)과 원효대사 동상 등이 있다. 또한 어린이놀이터 등의 공원시설등이 설치되어 시민의 건강관리 및 휴식처로써 일반공원으로서의 기능도 하고 있으며, 효창운동장·테니스장 등의 체육시설 등이 설치되어 있다.

## III. 기본계획

### 1. 발주처의 의도와 문제점

현상공모에서 계획개념의 도출은 대개의 경우 '현상공모지침서'에 나와 있는 발주처의 의도나 문제점등을 분명히 파악하는데서 출발하지 않나 판단된다. 본 현상공모 지침서에 따르며 현상공모의 목적은 서론에서 서술한 바와 같이 '..... 효창공원을 성역화하여 이곳을 찾는 시민과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애국심을 고양하고.....'이었다.

문제점으로 지적할 수 있었던 것은 발주처가 효창공원의 '성역화'를 위해 '상징조형물'을 설치하고자 했던 점이 아닌가 판단된다. 분명 '성역적'인 특색이 있는 공간임에도 불구하고 어린이 놀이터에서 운동시설까지 혼조되어 다분히 근린공원의 성격이 강한 공간을 '상징조형물'이라는 오브제(object)의 설치로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던 점일 것이다.

물론 발주처의 입장에서, 그렇다고 지금에 와서 '성역적'인 성격과 배치되는 근린공원의 성격을 유발하는 모든 시설을 제거하는 것도 현실적으로 인근주민의 반발로 불가능하다는 점도 분명하다.

이러한 상황에서 설계가가 취할 수 있는 입장은 현상공모에 참여 할 것인가 말 것인가, 참여한다면 결국 효창공원이 '성역적'인 공간이 분명하다는 점을 인식시켜주는 그 어떤 상징조형물을 어디에, 어떻게 설치할 것인가 일 것이다.

### 2. 부지해석과 입지선정

상해임시정부 요인과 항일독립투사의 묘, 그리고 원효대사의 동상, 반공기념탑 등이 효창공원의 숲속에 곳곳에 자리잡고 있으나 전체적인 마스터 플랜(master plan)없이 그때그때 필요에 의해 중요한 요소들이 산발적으로 첨가되어온 효창공원은 공간의 중심성이나 연계성의 부족으로 인해 기념적 요소에 대한 인지도가 미미하다 하겠다.

이윽러 선열들의 묘역과 기념비적 상징물이 많이 입지하여 '성역'으로서의 의의는 갖추고 있으나, 입구에서 부터 인지되는 근린공원의 일반적인 풍경이나 특별하지 않은 이미지가 성역으로서의 장소성을 상실케 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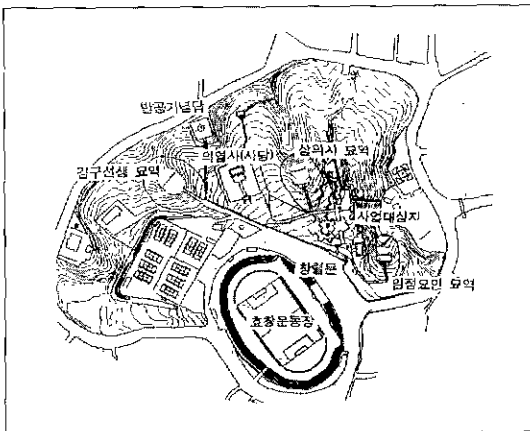


그림 2. 효창공원 전체 현황도 + 상징조형물 위치

이런점들을 고려하여 성역화를 위한 상징조형물의 입지를 찾는 기준을 다음과 같이 정리하였다.



사진 1. 침렬물 밖 주차장에서 본 효창공원 전경



사진 2. 창렬문과 공원 진입부



사진 3. 진입부 전경

- 첫째 : 기존의 비구성적 상징체계를 통합·조정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야 한다.
- 둘째 : 효창공원내의 묘역 및 기타 상징요소와 강한 대비가 되는 부지는 피해야 한다.
- 셋째 : 영역성을 창출할 수 있는 일정 면적의 공간이 확보되어야 한다.
- 넷째 : 상징조형물은 공원의 내·외부에서 인지되어야 한다.
- 다섯째 : 성역화된 분위기가 입구에서부터 감지되어야 한다.

### 3. 기본구상

#### 1) 공간구성

공간의 구성축과 조형언어의 상징축을 분리함으로써 효창공원에 모셔져 있는 선열의 묘역과 기념적 상징요소의 의미를 보전하면서 전체 부지의 상징체계를 성역화 상징조형물을 중심으로 새롭게 구축하고자 하였다. 또한 효창공원에 산재해 있는 의인열사의 혼과 정기를 수로로 형상화 하여 전체부지와 상징조형물과의 연계성을 특히 강조하고자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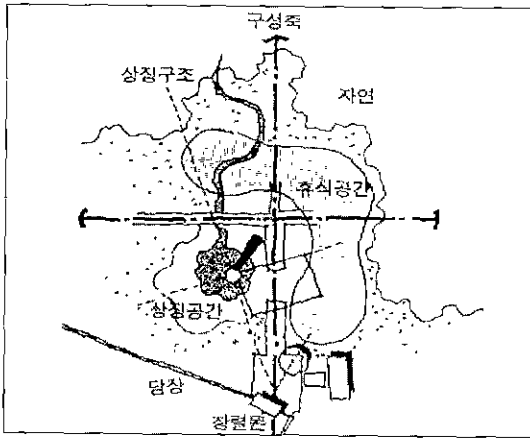


그림 3. 공간구성 개념도

2) 입면구성

“점지(點指; 點地)”의 강한 의지를 ‘수직적 조형요소’로 강조하고, 그 ‘지점’의 존귀함을 사각의 유리공간으로 처리하여 성스러운 공간으로 상징화하고자 하였다. 또한 ‘점지’의 수직적 조형요소와 대비되는 수평적 요소인 ‘연못’은 수로의 정점으로써 점지된 장소의 신성함과 의인열사의 의지가 합쳐되는 상징적 공간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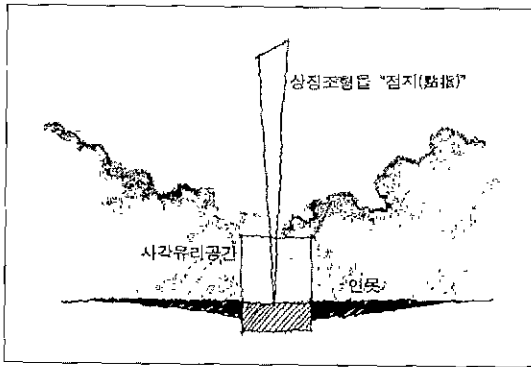


그림 4 입면구성 개념도

3) 설계안의 발전과정

전체적인 계획과 상징조형물의 구체적인 계획이 물론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되었으나 설명의 편의를 위하여 상징조형물의 구체적인 계획은 다음 항에서 설명하기로 하고 본 항에서는 전체적인 계획의 발전과정을 설명하고자 한다.

조정적인 관점에서 우선적 고려사항은 제 3장의 2절 ‘부지해석과 입지선정’에서 지적하였듯이 상징조형물

의 입지일 것이다. 본 안에서는 입구에서부터 인지되는 근린공원의 일반적인 풍경이 호창공원의 성역화에 가장 큰 문제점이라는 인식하에 성역화된 분위기가 입구에서부터 감지되어야 한다는 나름대로의 기준으로 진입부에 상징조형물을 위치시키기로 하였다(그림 5 참조).

그 다음 고려사항으로서는 상징조형물과 공원과의 연계성일 것이다. 즉, 상징조형물이 그 자체로서 의미뿐만 아니라, 공원과의 연계성까지 어떤 형태로든지 표현될 수 있다면 더욱더 바람직하다고 판단하였다. 이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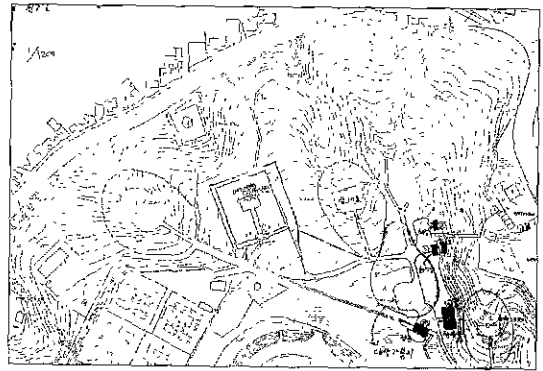


그림 5 상징조형물 대상지로서의 진입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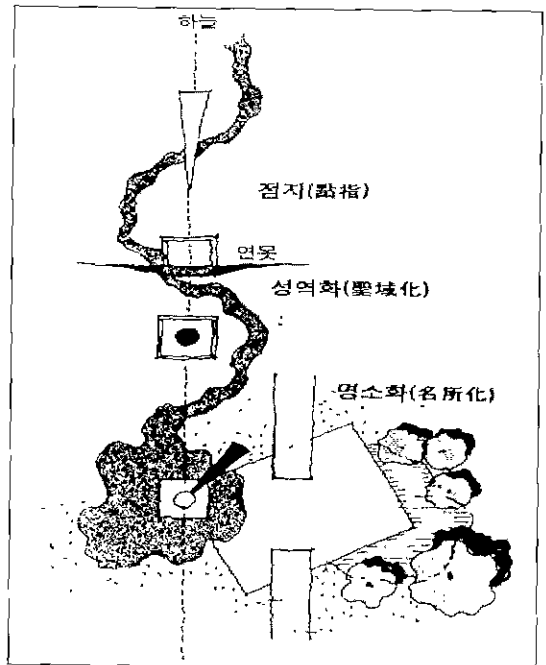


그림 6 수로와 상징조형물과의 관계 스테디

위하여 효창공원에 '산제'해 있는 '의인열사의 혼과 정기를 수로'로 형상화하여 전체부지와 상징조형물과의 연계성을 갖도록 하였으며 수로의 정점을 연못으로 처리하여 바로 그 곳에 상징조형물을 위치시키고자 하였다(그림 6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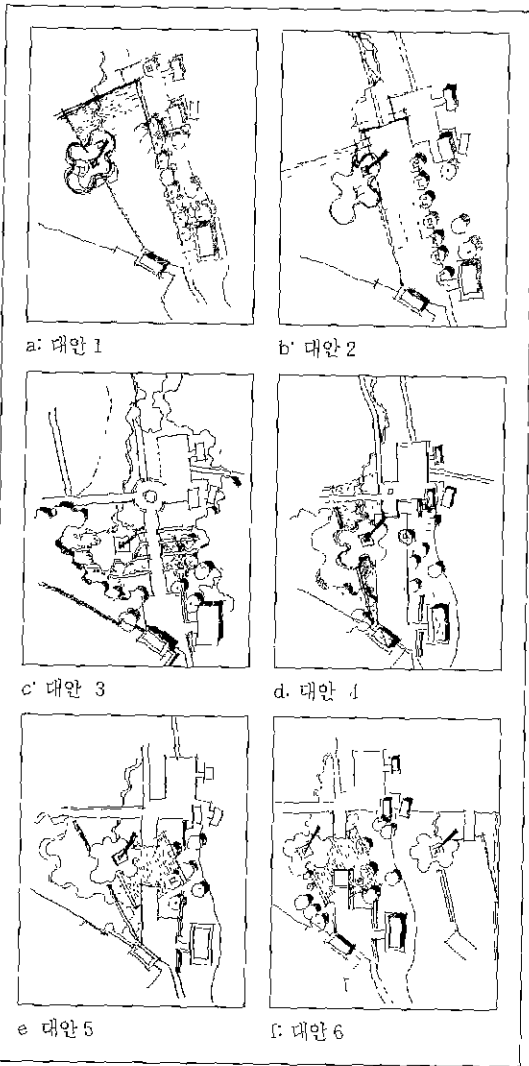


그림 7. 대안스터디



그림 8. 최종안 입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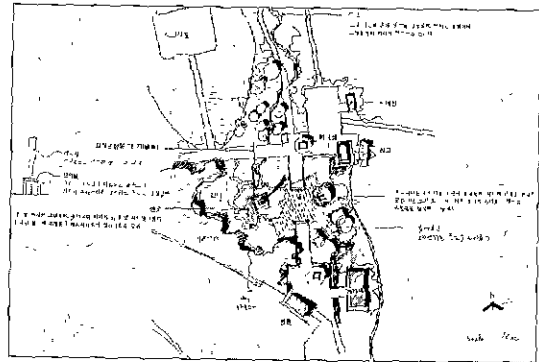


그림 9. 최종안 평면도

#### 4. 상징조형물 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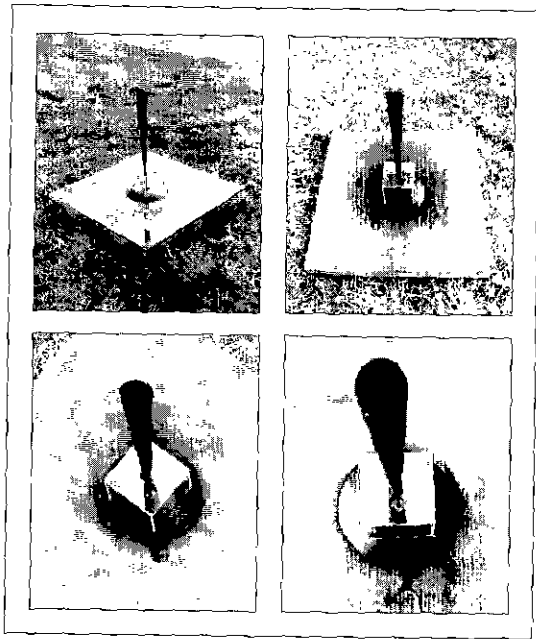


그림 10. "점지" - 스터디 모델

##### 1) 작품의도

김구 선생 등 선열의 묘역이 모셔져 있는 효창공원의 환경적 조건이 전통적인 건축과 유물들에 의해 조성되어 있음을 전제로, 이러한 환경적 분위기를 손상시키지 않으면서도 성역의 현대적인 해석이 가능한 조형물을 계획하였다. 이를 위하여 가장 단순하면서 기념비적인 형상을 구상하였으며, 구체적이며 지시적인 형상보다는 개념적이며 추상적인 형상을 의도하였다. 또한 관람자의 입장에서 각자의 새로운 해석을 통하여 상징성

을 극대화시키고자 하였다.

## 2) 작품설명

### (1) 장소성

조형물의 제목은 “점지(點指: 點地)”이며 이는 함축적 의미의 지점과 장소성을 갖는다. 이러한 지점은 하늘과 땅이 만나지는 지점이며, 성스러운이 갖든 장소이다. 이를 위하여 하늘과 땅을 연결하며 계시와 같은 방향을 갖는 수직적인 형상과 성역의 성스러움을 의미하는 열려 있으면서도 성스러운 공간(투명한 공간)이 이루어 내는 장소를 연출하였다. 또한, 모든 조형적 의미는 하나의 지점 즉, 우리의 정기, 뿌리와 같은 의미를 지니며 생명의 근원을 이루는 땅의 내부(땅과 연결되는 수면의 홀)로 귀결되어 소통한다.

### (2) 성역

김구 선생 등 선열들의 혼과 정기는 하늘과 땅(우주) 그리고 우리 마음속에 내재되어 있는 힘이다. 조형물은 이러한 힘의 귀결을 상징한다. 그림 11의 '가'의 수직적인 형상은 하늘의 정기를 땅으로 소통시키고 있다. 이는 선열들의 열의 역사를 과거, 현재, 미래로 이어지게 하는 시간과 역사적 의미와 온누리에 있는 정기의 근원을 상징하는 공간적 의미를 갖는다. 그림 11의 '나'의 투명한 공간은 열려 있으면서도 은밀한 공간이다. 심리적으로 존귀한 느낌의 성스러운 공간을 연출함으로써 성역의 의미를 극대화한다. 그림 11의 '다'의 정점을 이루는 홀(물과 같이 지하로 연결되는 홀)은 깊은 에너지의 근원과 같은 느낌을 갖게 한다. 이는 선열들의 큰 뜻이 담긴 이 땅의 근원과 다시 생동하는 에너지의 발원처와 같은 곳을 의미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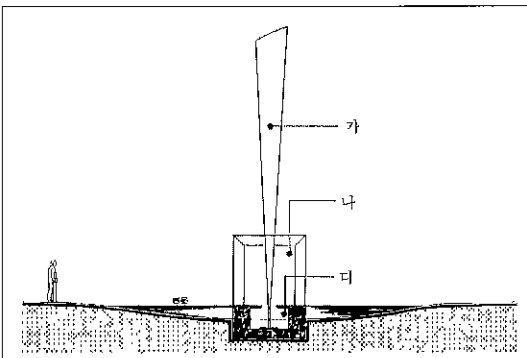


그림 11. “점지” - 입면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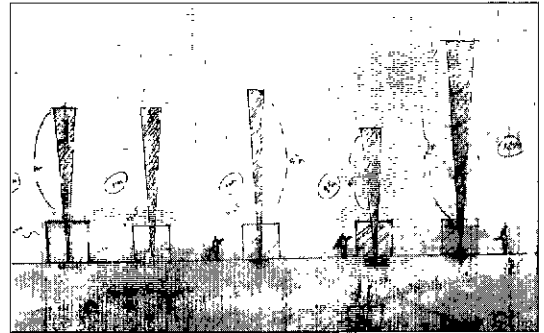


그림 12. “점지” - 높이스터디

## IV. 맺음말

일반적인 현상공모시 설계자의 입장에서 안타까운 점은 발주처에서 현상공모내용을 미리 한정해 버리는 경우일 것이다.

본 현상공모에서도 문제의 핵심은 분명 '성역적'인 요소가 많이 산재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근린공원의 성격을 강하게 띄고 있는 효창공원을 좀더 '성역화'하는 점일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효창공원 성역화 상징조형물 기본계획(안) 현상공모'라는 현상공모의 명칭에서 알 수 있듯이 성역화를 위해 '상징조형물'이라는 '오브제(object)'의 설치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다는 점은 지적하고 넘어 가야할 사항인 것 같다.

한 장소에 대한 기념화 또는 성역화는 건축, 조경, 조각 분야가 개별적 혹은 혼합적으로 다양하게 접근할 수 있을 것이다. 미국의 수도인 Washington D.C.를 예로 들자면, 역대 주요 미국대통령을 기념하기 위한 표현방식을 대략 다음과 같은 세 가지로 크게 나누어 볼 수 있지 않나 생각한다. 첫번째는 Washington Monument 같은 조각적 접근방법, 두번째는 Lincoln Memorial이나 Jefferson Memorial 같은 건축적 접근방법, 마지막으로 세번째는 Roosevelt Memorial 같은 조경적 접근방법이 그것이다. 본 현상공모에서는 조각적 접근방법으로 생각할 수 있는 '상징조형물'의 설치로 그 범위를 미리 한정함으로써 다양한 접근을 미리 제한해 버린 점이 아쉬운 점으로 지적될 수 있겠다. 물론 당선안에서도 '상징조형물'의 위치나 상징조형물과 효창공원과의 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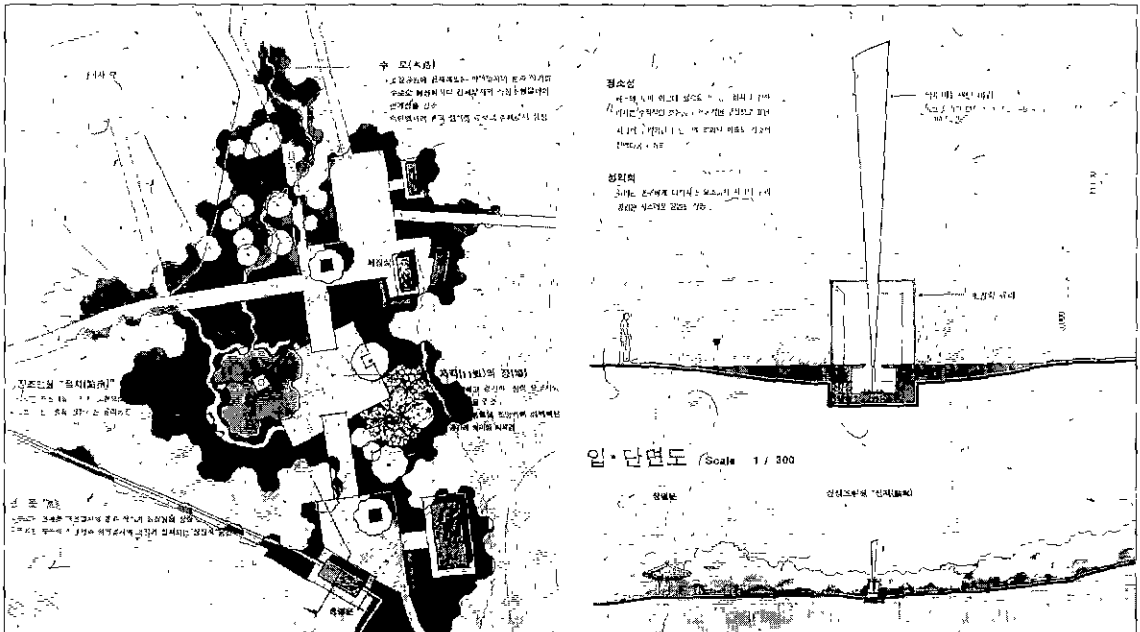


그림 13. 기본계획도



그림 14. 조감도



사진 4. 준공후 전경



사진 5 준공후 모습 부분

계성을 위해 효창공원에 산재해 있는 의인열사의 흔과 정기를 형상화한 수로를 조성했다든지, 상징조형물의 수직적 요소와 대비되는 수평적인 요소인 연못의 조성과 그 연못에 상징조형물을 위치시켰다든지 등의 조경적 성격을 많이 내포하고 있긴하다. 하지만 결국 공간의 문제로 해결했다기보다는 오브제의 설치로 문제를 해결했다는 점은 현상공모 지침서의 내용을 수용할 수밖에 없었던 현상공모 참가자의 한계가 아니었던가 생각된다.

주1. 효창공원의 유래에 관해서는 현상공모 지침서에 나와있는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